中企-대기업 근로자 엇갈린 설 표정

중소기업 상여금 대폭 줄고 5일 휴무 많아

대기업은 두둑한 상여금에 최대 9일간 휴무

올 설을 맞는 광주·전남 지역 직장인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대기업 근로자들은 두둑한 상여금과 휴무를 지급받지만 일부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은 경기침체로 얼마씩 받았던 상여금 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표 제조업체인 기아자동차는 이번 설에 모든 직원에게 귀향교통비 8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10만원, 사이버머니 15만원 등 105만원 상당의 설 선물을 지급한다. 대리 이하 직원에게는 통상임금의 절반까지 제공해 최대 2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최근 마무리된 임금협상 결과 지급하기로 한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도 설에 맞춰 줄 예정이다.

기아차는 6일부터 11일까지 일괄적으로 6일간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되면서 하루가 늘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역시 기본급 100% 기준으로 상여금이 지급된다. 설 휴무는 지역 최장기간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쉴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쉬며 설 정규 상여금 100%를 지급받는다. 액수로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업계가 몰려있는 전남 서부 지역 근로자들은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휴무에 돌입한다.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아 연휴기간이 길어졌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약정임금의 50% 상여금과 귀향여비 5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LG화학과 GS칼텍스 등 정유·화학업계가 많은 전남 동부 지역 근로자들은 연휴 때에도 일정 부분 공장 가동을 유지한지만 대체로 5일 이상 휴무를 가질 예정이다. 또 유가하락 등의 여파로 업계경기가 좋지않아 예전같이 넉넉한 상여금은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휴무가 늘었지만 상여금은 대폭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8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기간과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주말 포함 5일이 많았고 6일 이상 쉬는 곳도 늘어났다. 휴무기간은 늘었고 설 상여금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상여금은 1인당 평균 65만2000원으로 지난해 74만2000원보다 9만원 정도 줄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로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기업의 자금사정도 곤란해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중소기업체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등 각박해진 노동환경과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증가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가 빨리 회복돼 상여금도 넉넉히 주고 기분좋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설 효도선물, 보청기로"

금강보청기, 사은품 이벤트

금강보청기(대표 선명진)가 설날을 맞아 '효도선물 특별 서비스'를 진행한다.

금강보청기는 신제품인 고품질 '테크노 시리즈3'을 구매할 경우 특별이벤트 가격과 스타키 정품 배터리를 3년치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2~36개월 장기할부 무이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청각장애인에 한해서는 국가보조금 131만원을 지원해 본인부담금을 10%로 줄이기로 했다.

금강보청기가 선보인 테크노 시리즈3은 미국 스타키사의 최신 청각 기술을 반영해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한다. 테크노 시리즈3은 블루 웨이브 3.0 플랫폼을 사용해 사용자의 청력에 맞게 세밀하고 개별화된 피팅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gdigital.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2-462-5233. /김대성기자 bigkim@

한전 조환익 사장(왼쪽)이 나주 이화영아원에서 영아들과 함께 만두빚기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전제공〉

'나눔 발전소' 한전

설맞이 나주 영아원 방문 음식 봉사·성금 전달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3일 한전 본사가 위치한 나주시의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을 방문해 소외아동들과 설맞이 음식 만들기 등 노사합동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한전 경영진과 노조(전국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간부들은 이날 소외아동을 위해 '나주 로컬푸드 직거래 상생장터'를 방문해 쌀과 과일 등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장상인을 격려했다.

한전은 지난 1월 25일부터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맞이 봉사주간'으로 정해 본사 및 전국 267개 사업소 2만 여명의 봉사단원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한전 사회봉사단원들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을 방문,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구입한 2억원 상당의 음식물, 난방용품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무료급식, 전기설비 점검 등 노력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한전 사회봉사단은 2004년 5월 창단 이래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원급여의 일부를 모아 재원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환익 사장은 "요즘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노사가 하나 되어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90.67 (-15.93)
- 금리 (국고채 3년) 1.50% (-0.02)
- 코스닥 680.94 (-3.92)
- 환율 (USD) 1219.30원 (+11.90)

효성 영업익 9502억원…사상 최대

지난해 매출 12조4585억원…영업익 전년비 58% 증가

효성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9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7% 증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매출액은 12조4585억원으로 2.3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259억원으로 80.11% 늘었다. 작년 영업이익은 전 부문의 고른 성장이 두드러졌다. 2014년 60%가 넘었던 섬유 부문의 비중은 44%로 줄었고 중공업 부문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섬유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7.9% 증가한 426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 시장 1위인 스판덱스가 수익 호조세를 이어갔고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원사도 차별화 제품 판매 확대, 원료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추세다.

산업자재 부문은 61.9% 증가, 14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타이어 산업의 경쟁 과열, 타이어보강재의 공급과잉에도 신규 고객 확보 등으로 판매량이 늘었다.

화학 부문은 전년보다 38.9% 증가한 100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PP/DH 사업에서 원재료 가격 약세, 수익성 높은 제품 확대, 터키 등 고관가 지역 판매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향상됐다. NF3 사업에서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

중공업 부문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스태콤 등 신사업 확대 추진으로 2014년 52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1522억원으로 2800% 이상 뛰어올랐다.

건설 부문 역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등 브랜드 론칭과 민간주택사업 경기 호조 등으로 전년보다 66.8% 증가한 43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재무구조도 대폭 개선됐다. 효성은 차입금 감소와 함께 이익 증가로 ㈜효성의 부채비율(개별 기준)이 2013년 203.4%에서 159.0%로 44.4%포인트 감소,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결 기준으로도 2013년 402.4%에서 2015년 303.6%로 감소, IFRS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택대출 금리 3%대로 올라

2%대 광주은행·수협 뿐…예금금리는 1%대

한국은행이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까지 떨어뜨린 영향으로 2%대에 진입했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3%대로 올랐다.

3일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급액 기준으로 16개 은행 가운데 14개 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섰다.

2%대 금리를 유지하는 곳은 SH수협은행(2.99%)과 광주은행(2.92%) 등 두 곳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지 한 달 만인 작년 7월 연 3% 밑으로 떨어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등장했고, 두 달째인 8월부터는 시중은행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내려앉았었다.

그간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었지만 약 반년 만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로 복귀한 것이다.

작년 12월에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가 50조원을 넘는 거대 시중은행들의 금리는 전부 3.2%를 넘었다.

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3.24%, 2위인 우리은행은 3.26%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은 3.24%, KEB하나은행은 3.20%이고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은 3.15% 수준이었다.

금융공공기관인 산업은행(3.78%)과 기업은행(3.22%)도 3.0%를 훌쩍 넘었다. 지방은행 중에는 신한금융지주 계열인 제주은행 금리가 연 3.21%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행(3.15%), 부산은행(3.13%), 대구은행(3.12%)이 그 뒤를 이었다.

3일 현재 우대금리를 제외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수신예금 금리는 대부분 연 1%대다. /연합뉴스